

민주, 경제·방역 총력...“선거 주는 표, 코로나 끝낼 마침표”

대선 후 2차 추경 공식화 당국에 방역 조치 완화 촉구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경제·방역 대응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의 후속 조치와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서영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3·9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나설 것을 곧바로 공식화하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경제 부스터샷'을 주장해온 이 후보와 발을 맞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면서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재정 명령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연일 외치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당국에 방역지침 완화 검토를 촉구했다.

확진자 폭증세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검사 간소화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송영길 대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자가진단키트 양성 나오면 의사가 증상을 듣고 코로나로 인정해 주면 PCR을 받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 (키트에서) 양성 나왔는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만 PCR을 받는 식

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모아서 방역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자가진단키트와 PCR 검사의 이중 검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치명률을 기반으로 우리도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 나오면 본인의 체감증상이 확실할 경우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검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총력 대응은 3·9 대선을 15일

남겨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문재인정부의 방역 실패를 부각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이 후보도 함께 책임론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70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 지원을 담은 추경을 처리하자마자 2차 추경을 거론하며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이 후보도 전날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면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 재도약 앞으로, 인천 경제 제대로' 부평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치교체·세대교체 앞세워 安에 리브콜

'5020 전략' 젊은층 지지세 확산 安과 주파수 맞추며 중도층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 '5020 전략'을 가동하며 젊은 층으로의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기엔 나를 존경하는 분”이라며 “그분이 가진 새 정치의 꿈은 제가 평소 이야기하던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 시대교체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정치교체와 통합적 내각, 양당제 폐해를 극복할 다당제 등을 계속 얘기해 왔다”며 “이런 내용이 안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간 해온 이야기와 맥이 닿는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에 나설 때마

다 정치교체·시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 TV 토론에서도 안 후보에게 직접 통합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난 20일 안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이후 정권 교체론을 중심으로 짜여 있던 여론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그동안 야권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며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워 온 만큼 단일화 결렬 이후 곧바로 직접적인 리브콜을 보내기는 어렵지만, 안 후보의 제3세대론과 자신의 정치교체론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다며 양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전략이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의 승부처로 불리는 2030세대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5020 전략'의 가동에도 들어갔다.

50대 부모 세대가 20대 자녀 세대를 설득해 이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들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4050세대를 교두보 삼아 자녀 세대로 지지세를 확산, 국민의힘의 세대 포위

론을 돌파하지는 못할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30세대가 부모를 설득했다면, 이번에는 4050세대가 된 그들에게 자녀를 설득해달라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이대남' 집중 공략에 젊은 층의 지지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내부 위기감도 배경에 깔려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 후보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지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념과 무관하게 실리를 판단해 투표하는 2030세대의 성향이 당의 '뒤틀림'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까지 쇼핑몰 이슈와 맞물려 표면화됐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지도부는 호남 20대 청년들에 대한 분석, 2030 공략 대책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인천 로테오거리와 부평역, 경기 안산 등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安과 통합정부 공감할 수 있게 대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통합정부'를 염두에 두고 꾸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후 '선대위 차원에서 접촉한 바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식의 단기적인 선거 연대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정치교체

이런 것에 같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안 후보가 통합정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을 꾸준히 (시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도 부동층 공략을 위해 집권 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통합정부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 시청률 34.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회 시청률이 30%대로 집계됐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는 2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4곳(MBN·JTBC·채널A·TV조선), 보도전문채널 2곳(연합뉴스TV·YTN) 등 총 9개 채널이 동시에 생중계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률 합이 34.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채널별 시청률은 KBS 8.5%, MBC 5.1%, JTBC 4.1%, SBS 3.9%, 채널A 3.1%, MBN 2.9%, TV조선 2.7%, YTN 2.5%, 연합뉴스 1.5%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TV토론에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엔 처음이다.

이번 토론의 시청률은 지난 3일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토론 시청률 39%보다 4.7%포인트 낮고,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6개 채널이 생중계한 토론 시청률 21.37%보다는 12.93%포인트 높았다.

역대 대선 후보 TV토론 시청률 최고 기록은 1997년 제15대 대선 때 나온 55.7%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선관위 법정토론 초청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오는 22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토론한다. /연합뉴스

선관위, 대선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가정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선 후보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1부씩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선 공보는 16면 이내의 책자형 공보와 양면 1장인 전단지 공보로 구성된다. 먼저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실려 있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의 전단지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오는 27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7일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된다. 중앙선관위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 등 신청자에게는 27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할 계획이다.

각 대선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마당' (<https://policy.nec.go.kr>) 코너에서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형,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용